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7호

고양 상배 · 회다리 소리





2017년 6월 16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된 고양 상여·회다 지소리(보존회장 김우규)는 김녕김씨의 24세손인 차하수 정삼품외 중추원 의관과 선공감 감역을 역임하셨던 김성권 선조의 장례의식을 재현한 민속 문화이다. 당시 상여의 규모가 일반상여의 3배에 달했으며, 만장기가 무려 250여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문행렬은 5리(2km)에 달하였으며, 당시 조문객에게 대접한 양식이 쌀 열두 가마를 하고도 모자랐을 정도로 큰 규모의 상례문화였다.

고양지역은 달구질을 할 때 광중(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을 이르는 말) 밖에서 밟는 것이 특징이다. 고양시 일대는 왕릉이 많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릉 조영의 영향으로써 광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나라님을 차마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 밖에서 밟는 것이라 한다.

소리는 상여소리와 달고소리로 나누어진다. 상여소리에는 발인소리, 긴소리, 상여소리, 넘차소리, 염불소리, 잣은상여소리, 긴염불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또 달고소리는 군말, 긴소리, 달고소리, 양산도, 방아타령, 떃다소리, 놀놀이, 상사소리, 훨훨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고양 상여·회다지의 소리는 옛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에서 초상과 장지에서 불렀던 것으로, 이를 정리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양 송포 대화리에서 초상이 나면 상제들이 장지를 향하여 떠나려는 상여속의 망자에게 절을 올리는데 그 동안에 상여꾼들은 염불소리와 하직소리를 부른다. 상여를 메고 집을 나서면 오호소리를 부르고 걸음을 빨리 해야 할 때나 언덕길에 다르면 잣은 상여소리로 재촉을 하고, 노제시와 장지에 거의 다 이르면 넘차소리와 염불소리를 부르며 노갯돈을 풀어낸다. 장지에 다다르면 긴염불 소리를 부르고 상주와 세 번 맞조와 절을 한 후에 상여를

내려놓는다. 이후 광중이 조성되면 하관을 하고 이어 달구질을 하면서 회다지소리를 부르는데 먼저 군말과 함께 긴소리를 부르고 이어서 달구소리, 양산도, 방아타령, 놀놀이, 뗏다소리, 상사소리, 훨훨이로 끝을 맺는다.

고양 상여·회다지소리의 특징과 가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고양시 상례의 특징은 사자밥의 차림이다. 절구통을 얹어 놓고 그 위에 채반이나 도래방석, 키를 올려놓고 메와 나물을 올려 놓는것은 경기북부지역이 유사하나 하지만 고양지역의 경우 메와 나물이 세 그릇이 아니라 일곱그릇을 놓는다. 그리고 사자 밥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타성 받이가 와서 지어 주는 것이 다르다. 참고로 사자밥은 상여에 싣고가다 다리를 건널 때 버린다.

둘째로, 고양지역은 흙과 회를 섞을때 달구대로 섞으며, 달구질을 할때 경기북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광중에 들어가 밟는데 비하여 이곳은 광 밖에서 밟는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왕릉 조영의 영향으로써, 광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나라님을 차마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 밖에서 밟는 것이라 한다. 고양시 일대는 왕릉이 많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릉작업을 할때 밟지 않는 풍속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셋째로, 고양지역은 논길 소리를 회방아 다질때도 부르기 때문에 소리종류가 다양하다. 상여소리와 회방아 소리는 애절함 보다는 웅장함이 있고 어둡기 보다는 밝은, 경토리제의 소리이다. 호상에 있어 호적, 장고, 제금, 북을 앞 세우는 것과, 상여놀리기의 오호넘차소리, 염불소리, 회방아 긴소리, 달고소리, 회방아타령, 홀오리소리, 상사도야, 새쫓는소리 등 순수한 지역소리가 온전히 보존되어 큰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 故김재운(김우규보존회장모친)의 실제 상여운구행렬

과천 대극장 초청공연 장면 ▶





독일 비스바덴 카니발 초청공연 (2010년)

독일 비스바덴 카니발 초청공연(2010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진혼제 장면 (일산 문화공원)





▶ 제18회경기도민속예술제참가

회다지소리 재현장면(고양문화원 야외공연장) ▶





▶ 정기공연 (어울림극장)

정기공연 (어울림누리극장) ▶





▶ 정기공연(고양문화원 야외공연장)

고양문화원 야외공연장 ▶





▶ 정기공연 (호수공원 주제광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공연 모습 (2017) ▶





▶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공연

- ▶ 명장 이강연의 수공예 작품으로 150여 년 된 고재를 사용했다. 구조는 전통 대여형식의 삼층 조립식이며, 크기는 길이8m, 높이 3m에 달하는 대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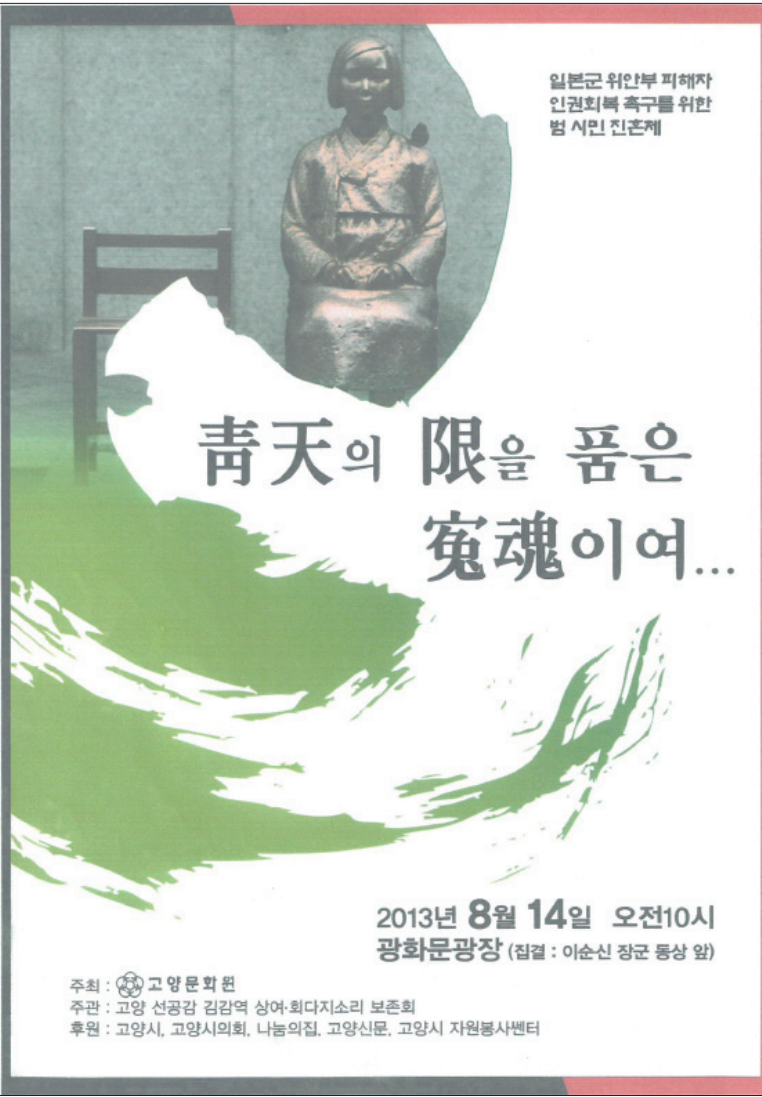


▶ 짚은 상여소리

오—호-오-헤

가세가세 어서가세	하관시가 늦어지네
앞에사람 당겨주고	뒤에사람 밀어주소
태산준령 험한길을	넘차넘차 어화넘차
한모퉁이 돌아가니	까막까치 지지울고
두모퉁이 돌아가니	여시새끼 깽깽울어
세모퉁이 돌아가니	두견접동 슬피운다
산은침침 천봉이요	물은잔잔 백곡이라
산도싫고 물도싫데	누굴보러 여기왔나
산이좋아 오시었나	물이좋아 오시었나
꽃가마는 어데두고	꽃상여가 웬말이나
다왔구랴 다왔구랴	만년집을 다왔구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촉구를 위한
범 시민 진혼제



靑天의 限을 품은 冤魂이여...

2013년 8월 14일 오전10시
광화문광장 (집결 :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주최 :  고양문화원

주관 : 고양 선광감 김감역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후원 : 고양시, 고양시의회, 나눔의집, 고양신문,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상여소리 독일서 성황리 공연

비스바덴 카니발에 발표...한인회 뜨거운 갈채

미병우 기자 송인 2010.02.25 21:10 호수 966 댓글 0



▲ 지난 14일 독일 현지인들과 교포들이 모인 가운데 비스바덴 카니발에서 고양상여소리가 발표되는 장면.

독일 비스바덴시 한복판에서 '선공감 김감역 고양상여소리'가 울려 퍼졌다.

설날이었던 지난 14일은 때마침 151년 전통의 비스바덴 카니발이 있는 날이었다. 이날 이국 땅에서 선보인 고양상여소리 공연에 독일 현지인과 교포들은 많은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전한다.

비스바덴 카니발에 참여한 10개 국가 274개 공연단체 중 하나로 참여한 고양상여소리는 구구절절한 소리꾼의 소리, 화려한 의상과 태극기, 고양시 로고 등을 포함한 만장을 앞세운 공연으로 교민과 독일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비스바덴 카니발은 이 도시의 엠저스 광장에서 시작해 라인 거리를 통해서 빌헬름 거리로 향한 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예술공연 단체의 시가행렬로 이뤄진다. 고양상여소리는 274개 예술공연 단체 중 118번째로 참여 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잘 볼 수 없는 3단 상여로 상여와 의상, 만장 행렬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만장행렬의 경우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한국 색의 조화, 또한 향수와 그리움을 비단천에 표현했다. 행렬 내내 관객들은 오색구름이 흘러가듯 장관을 연출한 고양상여소리 행렬에 현지 교민들은 큰 위안을 얻은 듯하다고 전한다.

고양상여소리는 고양시 송포지역의 김녕김씨 문중의 선대조인 김성권의 장례의식을 재현한 문중 상여소리로 조선시대에 선공감 감역이라는 벼슬을 역임한 김녕김씨 김성권씨가 별세하자 당시 만장기가 250여개에 이르렀고 운구행렬이 5리에 달할 정도로 많은 조문객의 슬픔과 호상(好喪)이라는 축복 속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독일 비스바덴 카니발은 독일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헤센'이라는 주의 수도인 인구 27만도시 비스바덴(Wiesbaden)에서 내려오는 전통 카니발이다.

'편히 쉬소서'...위안부 피해 이용녀 할머니 진혼제

본문보기 | 설정

기사입력 2013-08-14 11:54 | 최종수정 2013-08-14 15:45

공감

127

공유



'이젠 편히 쉬소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용녀 할머니의 진혼제에서 참가자들이 고인과 먼저 세상을 떠난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영정을 들고 상여행렬을 하고 있다. 이용녀 할머니는 1995년부터 경기도 광주 니눔의 집에서 생활하며 일본군의 비인도적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섰으나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11일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2013814 superdoo82@yna.co.kr

지난 11일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용녀 할머니의 넋을 기리는 진혼제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고양문화원과 ‘고양 선공감 김감역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혼제를 위한 상여행렬을 시작했다.

경기 고양시 화수고등학교와 호곡중학교 학생 100여명이 만장 70개를 들고 앞장섰다.

국화꽃으로 장식된 이 할머니 영정사진이 뒤따랐고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등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의 사진도 상여 앞에 자리잡았다. 이어 하얀 상복을 입은 회원들이 꽃상여를 따라 곡을 하며 광화문 앞으로 행진했다.

상여를 멘 이원재(75)씨는 “이 할머니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이 자리에 참가했다”며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사과 한 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할머니의 넋을 달래고 싶다”고 말했다.

약 30분동안 행진을 한 행렬은 광화문 앞에 상여를 내려놓고 진혼제를 열었다.

김우규 보존회 회장(74)은 “검정 치마 흰 저고리 순결한 그네들은 낮에는 노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위안부로 온몸을 찢기었네”라며 “우리들은 그네들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 부디 구천에서라도 굶어 살피소서”라는 축문을 읽었다.

‘할머니 편히 눈감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상여를 따른 화수고 1학년 김영환(17)군은 “학생이지만 진혼제에 참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다”며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못 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HOME > 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여성권익증진 공로 인정

고양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 김우규 회장 여성가족부 표창

마옥석 시민기자 승인 2014.12.03 13:43 호수 1201 댓글 0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7일 JW메리어트 창선당 콘서트홀에서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과 성폭력(일본군 위안부 포함)·성매매·가정폭력 등 아동·여성 폭력방지에 공이 있는 기관 및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포상식에서는 고양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이하 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 김우규 회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피해자 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포상을 받았다.

표창장을 받은 김우규 회장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 인류에게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2012년 시작된 ‘위안부 피해자 영령 진혼제’는 2013년과 201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범시민 진혼제’로 치렀고, 올해에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을 강압적 강제 연행하는 상황을 연출한 ‘끝나지 않은 잔인한 그 해 봄’ 추모공연을 더해 광화문광장에 운집한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제7회 정기공연 ‘선공감 김감역의 토바기 心’에서는 ‘고양 어릿광대’가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연출했다. 이번 공연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심경을 절절히 표현해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는 2012년 3월 1일 대한 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서 주최하는 제93회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나눔의 집 경내·외를 정리하는 봉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문공연과 자원봉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정기공연 발표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추구를 위한 범시민 진혼제를 아울러 올리며 시민들에게 위안부 인권문제를 각인시키기도 했다.

"무형문화재 공연수준 한 단계 높여"

고양상여회다지소리 문화재지정기념 공연

한진수 기자 승인 2017.10.19 13:32 호수 1342 댓글 0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공연된 고양상여회다지소리는 지역 전통공연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4호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보존회 문화재 지정기념공연이자 제10회 고양상여·회다지소리 정기공연이 18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지역 전통 문화재로는 처음으로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있었다. 방규동 고양문화원장을 비롯해 이봉운 부시장, 시의원, 지역내빈,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공연은 孝(효)를 중심으로 한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극으로 연출해 과거 선조들의 모습과 역사, 다양한 전통문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와 효 사상을 알리는 교육적 의미도 있었다.

김우규 고양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장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백성들의 삶과 설움, 일본의 억압과 만행에 대항한 민초들의 삶을 조명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수준 높은 공연이 만들어져 자부심이 느껴진다. 보존회원과 오늘 공연을 위해 힘이 되어준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양상여·회다지소리는 1620년경 고양군 시절 대화리에 정착한 김녕 김씨 가문에 대대로 전해오던 장례풍습으로 현재 지역을 중심으로 120여 명의 보존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고양시와 고양문화원이 주최했고, 고양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가 주관했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마련한 특별 무대로, 공연은 무료로 진행됐다.



김우규 장례문화 전통계승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상 수상

(아시아뉴스통신=주성진기자)

기사일력 : 2017년 07월 10일 09시 59분



김우규 자랑스런 도민상 수상 / 아시아뉴스 통신 = 주성진 기자

10일 오전 9시 경기도청에서 4층 강당에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상에 김우규 장례문화 전통계승자를 남경필 도지사가 수여했다.



연혁과 상훈

연혁

- 2000년 5월 김녕김씨 충의공파 송포종친회 부설
선공감 호상 상여소리 보존회 조직
- 2008년 10월 제1회 선공감 김감역 호상 상여소리 발표회
이후 매년 정기공연 실시
- 2008년 10월 효행을 실천한 김재운 할머니 장례집행
- 2009년 2월 효행을 실천한 오수길 고양문화원장 장례집행
- 2010년 2월 독일 비스비텐카니발 축제 초청공연
- 2010년 7월 고양시 향토무형문화재 제58호 지정
- 2012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진혼제(광화문광장)
이후 일본군위안부 진혼제 연차 실시
- 2017년 6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

상훈

- 2000년 9월 제3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우수상(경기도지사)
- 2010년 10월 고양시 문화상[예술부문](고양시장)
- 2011년 9월 경기도민속예술제 예술상(양주시장)
- 2011년 11월 경기도지사 표창장[문화예술부문](경기도지사)
- 2012년 11월 경기도 문화인상[문화예술부문](경기도지사)
- 2013년 10월 2013 대한민국 문화원상 수상(한국문화재연합회장)
- 2014년 11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장 수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관한 권익증진 및 헌신적 노력 등)
- 2017년 7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경기도민 선정패 수여
(보존회장 김우규)



“고양 상여·회다지 소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이제는 내가 더 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득 더 큰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전국의 상여소리 10여개 단체를 규합 구구절절 조상님께 올리는 효행의 소리인 상여소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겠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혼신의 힘을 쏟아 상여소리를 보존하고 널리 선양하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자 책무라 여기고 여생을 상여소리의 대중화, 세계화에 바치고 싶다.”(보존회장 김우규)

보존회 연락처

주소 :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54번길 7-20
전화번호 : 최장규(예술감독, 010-5274-4794)
이메일 : qqwwp4794@naver.com